진우 스님 "선명상·육바라밀 실천으로 업장 소멸"

고운사 · 안동사암聯 성도재일 법회서 법문

법사로 등단해 자비행 강조해
지역 스님, 불자 800여명 참석
"지역불교 발전에 매진을" 다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성도재일을 맞아 안동에서 열린 대법회에서 법사로 나서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와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1월 7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불기 2568년 성도재일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매년 성도재일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경축하고 불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회는 도량결계의식으로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독경과 명종 5타, 육법공양에 이어 1부 기념식 삼귀의례와 보현행원,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 봉행사, 격려사, 축사 그리고 2부 성도재일법회 법어, 시상, 발원문 봉독, 음성공양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사로 단상에 오른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운사와 봉정사, 봉암사, 불국사, 동화사, 은해사, 도리사, 직지사 등을 언급하며 "안동과 그 주변은 그야말로 불교의 본 고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척박한 상황에서도 포교와 전법의 일선에 있는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 불교가 성성하게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분들"이라고 격려를 보낸다.

진우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불교는 조선시대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켜져왔지만 서양종교가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역사를 속에서 약세를 겪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안정을 찾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시대 흐름 속에서 불교 정신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선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7일 고운사와 안동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성도재일 법회에서 법문을 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진우 스님은 선명상과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업장 소멸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늘 업장소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 해야한다"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5초 명상을 권했다. 이어 업을 줄일 방법으로 육바라밀을 강조했다. 스님은 "육바라밀 실천은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게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자비행으로 복을 쌓으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아가 이웃과 국가, 넓게는 세계가 평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문에 이어 진우 스님은 지역 불교계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하며 영주·풍기 영전사 주지 해득 스님에게 총무원장상을 수여 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봉행사에서 불교계의 화합을 강조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은 우리에게 연기의 진리를 일깨워 주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아는 것은 오늘날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라면서 "총무원장 스님의 법어를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자비와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길 바란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등불이 돼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성도재일 법회를 통해 모두들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여 대중들은 안윤효 제16교구 신도회장의 대표 봉독한 발원문에서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겨 지역 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는 제16교구 연합합창단이 음성공양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법회에는 800여 사부대중이 동참, 안동 지역 불교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새벽별 보고 깨달은 부처님처럼 정진하겠습니다"

조계사 봉은사 등 전국 사찰
성도재일 맞아 정진 이어가
월정사 본말사 전야 정진법회
제주항공 참사 희생사 추모도
지역 불교도 수행 열기 뜨거워

신중일 · 김내영 · 김가령 기자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으로 거듭난 음력 12월 8일을 맞아 전국 사찰들은 전야인 1월 6일부터 수행 정진을 이어갔다.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월 6일 경내 법왕루에서 성도재일 전야를 맞아 참선 수행정진을 진행했다. 수행정진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선원장 관도 스님, 교무국장 능원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은사는 이날 참선 수행정진에 이어 1월 7일 성도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성도절은 부처님오신날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날"이라며 "부처님께서 성불하지 않으셨다면 가르침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성도절의 의미를 전했다.

원명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의 뒤를 이어 성불하기 위해 수행·정진 한다. '한 두 시간 정진으로 성불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짧은 정진 공덕의 인연을 쌓아 성불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전생부터 이어져 온 1시간, 2시간의 공덕이 지금 100시간, 1000시간의 공덕의 바탕이 되고, 그렇기에 성도재일 정진은 불자로서 최상의 인연공덕을 쌓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당장은 성불을 하지 못 하더라도 이것이 쌓여 이내 성불할 수 있다고 믿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뒤이어 사부대중은 권미숙 신도회 사무총장이 대표 낭독한 '성도재일 전야 정진 발원문'을 통해 "오늘 정진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밝고 명료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닦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모든 중생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이며, 지금 이 자리가 영원히 빛나는 그 곳임을 아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눈이 뜨이도록 나아가겠다"며 "이를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길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서울 봉은사가 1월 6일 성도절 전야를 맞아 참선 수행정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길 발원하는 LED초를 든 채 포행하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모습. 사진=김가령 기자


월정사는 1월 6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성도재일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1월 6일 대웅전에서 성도재일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5일 성도재일 연합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은 발원이 담긴 LED초를 들고 법왕루 내부를 포행한 뒤 부처님 전에 초를 공양했다. 포행을 마친 이들은 각자 좌복에 앉아 봉은사 선원장 관도 스님의 죽비 3타를 시작으로 45분간 참선에 임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참선 정진은 45분 참선, 15분 포행을 세 차례 경행해 이뤄졌다.

매년 성도재일 참선 수행정진에 임하는 이정희 신도부회장(58, 무진혜)는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이 나아가신 길에 한 발자국이나마 인연을 쌓고 싶어 성도재일 참선 수행정진에 참여했다"며 "나와 내 가족, 주변인만을 위한 서원이 아닌,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서원을 세워 여여한 불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직영사찰인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는 1월 6일 성도재일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오후 8시부터 천수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경하고 108배 절수행, 선명상을 실참했다. 전강 영신 대선사의 오디오 법문을 들으며 깨달음의 의미와 수행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과 주지 스님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순으로 용맹정진을 회향했다.

오대성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 스님)는 불기2569년 성도재일을 하루 앞둔 1월 6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월정사 만월선원 대중스님과 월정사 사부대중, 포교사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재일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성도재일 법회에는 월정사 사부대중 뿐만 아니라 4교구 말사인 강릉 관음사포교당, 동해 삼화사, 원주 보문사, 횡성 백운암 사부대중도 비대면 온라인(줌)으로 법회에 참여했다.

퇴우 정념 스님은 법어에서 '제주항공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제안하고 "국가적 위기의 조속한 안정과 민생회복을 기원하는 슬프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성도재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부처님은 정각을 이룬 성도재일에 구세대비의 원력으로 세상에 오셨다. 오온을 쫓아가는 삶을 여의고 오온개공(五蘊皆空)의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고통과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면서 "마음은 심본무생(心本無生)이고 무수지수(無修之修)이다. 시비분별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호호탕탕하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대중을 독려했다.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스님)는 1월 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성도재일 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지산 대원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은 부처님이 인간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며 삼천대천 세계를 아우르는 대성인이 되신 날이다"며 "이 어려운 현실에 모두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생각을 한다면 더 좋은 삶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했다.

지역불교계의 수행 정진도 이어졌다. 경남 **통영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는 1월 5일 통영 마리나리조트 충무홀 1층에서 성도재일 연합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은 왕자로서 모든 부귀와 권세를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 싯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된 성도절을 봉축하는 날"이라며 "부처님께서 이루진 도의 큰 뜻을 깨달아 불자로서 본분을 항상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 내면의 지혜를 밝히자"고 당부했다.

관룡사 정안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색성향미촉법의 분별심에 사로잡힌 중생놀이는 그만하고 보살놀이를 즐기며 부처로 살아가자"고 설했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4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성도재일 기념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장 휘정 스님 봉행사에서 "오늘은 세존께서 6년여의 고행 끝에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며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는 자비, 이타행 등으로 표현되는 너무나 숭고한 행위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성스러운 내면을 갖추고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자"고 말했다.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경조 스님)는 1월 5일 대전비구니청림회 문화회관에서 '제39회 성도절 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 4대 명절의 하나인 성도재일을 맞아 이뤄졌으며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이 동참했다.

경조 스님은 대회사에서 "1986년 성도절 법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해 대전불교의 자긍심을 지켜왔다"며 "오늘 성도절 문화축제가 여법하게 열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전주 포교당 전북불교회관(감원 제환 스님)은 1월 7일 관내 4층 대법당에서 '불기2569년 성도재일 대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신도회(회장 한광수)의 주관으로 봉행된 이날 대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감원 제환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한광수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포교신행단체 임원진들이 동참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성도하지 않았다면 불교가 없고, 불법을 알 수 없었으니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의 서원을 세워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